

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증업체

심아전력 기계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뎀,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슬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지방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부실한 신도관리

불법을 수지독송하고 육바라밀을 행하여 사회와 인류를 위해 이바지하고 지혜를 체득, 성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이 불교의 신도관리다. 즉 신도관리에는 입문에서부터 교육, 수계, 신생활과 포교, 사회활동 등이 포함된다. 승가는 수행 공동체로서 엄격한 규칙과 질서를 바탕으로 생활하는데 비해 재가자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 없다. 부실한 신도관리에서 발생한 결과다. 교계의 신도관리는 축원카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원카드에 세대주 중심으로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만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상이 이렇다보니 정착 신도관리의 본질적인 부분인 불교 교육과 수계상황, 신생활 및 포교활동에 관한 기록은 염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신도관리에 소극적인 사찰 대부분 축원카드 의존은 수십년 전에 작성한 신도카드가 그대로 누적되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심지어는 신도관리 없이 찾아오는 신도들에 의존하는 사찰들도 많다. 결국 이같은 신도관리는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신도관리가 아니다. 말그대로 기도 또는 축원카드인 셈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단차원의 체계적인 신도관리 표준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불교는 그동안 여러 종교의 경쟁속에서 수적으로 우세를 보여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위현상이 언제까지 유지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종교인구 변화 추이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다. 이례는 불교적 장서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불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적극적으로 신생활에 참여하는 불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신도관리 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교계는 지금까지의 신도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도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도달했다.

김정근 기자(gamja@buddhapia.com)

'만해학' 국제학술대회

8월14~16일 백담사에서 '만해축전'

탄신 120년 맞아...문학심포지엄 등

우리 민족사와 불교사에 불멸의 등불로 빛나고 있는 만해 한용운선생(1879-1944). 스님의 탄신 120주년을 맞는 올해 8월 만해스님의 출가지이자 만해문화의 요람 백담사에서 범국민적 규모의 만해 축전이 열린다. 8.15 광복 54주년 기념 축하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만해축전에는 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체코 등 만해에 관심있는 외국 유명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만해학의 세계화에 대한 시금석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회장 명호근)가 주최하고 강원도(도지사 김진선)가 후원해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 동안 설악산 백담사(회주 오현)에서 열

리는 만해축전은 △개막식 △국제학술대회 △문학심포지엄 △문화의 밤 △승주공연 △시인학 교 등 다양한 행사로 펼쳐진다. 14일 개막식에는 원로 조병화 시인의 축사낭송,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환영사, 대화장인 고은시인이 '다시 만해를 생각한다' 제목의 대회사사를 한다. 이어 '20세기 한국현대사의 반성과 전망' 주제의 문학심포지엄이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국현대사와 시연구'로 기초강연을 하고 오세영(서울대) 최동호(고려대) 홍기산(동국대) 이승훈(한양대) 임현영(중앙대) 교수 등이 현대사의 정신사적 고찰, 사회사적 접근, 논쟁사와 비평



○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22일 전국의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는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대비원력으로 화합시대 열자"

22일 조계사등 전국사암서 초파일 봉축법요식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태고종과 천태종 진각종 등 각 종단도 이날 봉행사, 관문사, 탑주심인당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알리는 28번의 타종과 관불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조계사 법요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과 총무원장 고한스님 등 3원장,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 등 종단 지도자와 서석재 국회장관회장, 박철언 자민련 불자회장, 합동한 한나라당 불자회 등 정계 인사, 송석구 총국대총장 등 1만여명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고한스님은 봉축사에서 "지금까지의 불신숭배와 전도된 가치관으로는 새시대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정 해암스님의 법어 대독에 이어 법등스님은 남북공동발원문을 통해 공생과 화합, 남북통일을 발원했다.

특히 김동완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재정신부(성공회대 총장)가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기독교계 인사로는 처음 참석해 불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남북공동발원문 발표

이날 법요식에서는 한국불교 종단협의회(회장 고산)와 조선 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이 함께 마련한 '남과 북, 해외 불교도 공동발원문'이 전국의 사암과 미국 LA 관문사, 일본 고려사, 호주 관음사 등 해외 한국 사찰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발원문 2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모범수 1천240명 초파일 가석방

법무부는 20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범수형자 1,240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하는 의미에서 일례 가석방 때에는 포함하지 않던 무기수 1명과 형기 10년 이상 장기수 99명을 대상에 포함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조직폭력 규정과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고질적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가석방에서 제외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만공스님 ◇한암스님 ◇용성스님 ◇만해스님 ◇경봉스님 ◇참담스님 ◇고암스님 ◇성철스님

이번주 28면 특집발행

다음주 신문 쉽니다

현대불교 2기 명예기자 위촉

강원호(서울) 권경오(경산) 김남인(대구) 김미진(서산) 김춘환(인천) 박순배(강진) 백정기(서울) 안정수(인천) 유인자(서울) 이상모(춘천) 이희경(수원) 임경빈(대전) 최경수(서울) 최우진(서울) 이상 14명. *교육일정 추후 통보.

20세기 빛낸 고승 기념메달

조계공사-현대불교 제작 보급

근세 100년 우리 민족과 불교계를 이끌어온 위대한 큰스님들이 기념메달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한국조계공사와 각 분도회의 후원으로 1900년대를 마감하는 올해 1999년, 근세 100년을 정리하고 기념하는 뜻깊은 문화포교사업으로 '근세100년 고승 기념메달'을 제작 보급합니다.

◇제작: 한국조계공사가 직접 디자인 조각하며, 조계공사가 보증하고 영구히 보존하는 메달입니다.

◇출시 일정: △5월-17일 용성·청담스님, 24일 만공스님, 31일 성철스님 △6월-7일 고암스님, 14일 한암스님, 21일 만해스님, 28일 경봉스님 △7월-5일 효봉스님

◇가격: 메달 1개당 5만원이며 수익금은 큰스님을 기리는 기념사업기금으로 활용됩니다.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화 (02)737-8881, 722-4162

◇은행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279 농협 053-01-236053

gwa (주)권화종합건축사무소
GUN WHA ARCHITECT & GROUP CO., LTD

종합 건축설계 · 종합 감리전문 · 마스터플랜 · 엔지니어링 · 시뮬레이션 및 애니메이션 · 구조물 안전진단

대표 TEL(02)555-1567 ~ 8 · (02)555-7181 ~ 4

주식회사 아라종합건축 · 건설

건축 시공 · 전적 · 유지 관리 · 강구조(P.E.B)

대표 TEL(02)555-5775 · (02)555-2434 ~ 6

ARI 아리건설(주)

주택 건설사업 / 사업성 검토 / 부동산 컨설팅 / 인테리어 / 건축자재 무역업

대표 TEL(02)555-1567 ~ 8 · (02)555-7181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2-24(아리빌딩2.3층) 대표이사 김기상